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와 익산시는 미원상사(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미원상사(주)와 전북도, 익산시는 익산 대규모 생산공장을 추가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화장품 핵심원료생산 거점화

미원상사, 도·익산시와 대규모 생산공장 신설 협약

제3일반산단에 3035억원 투자·300명 일자리 창출

전자제품, 화장품 등의 핵심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중견기업 미원상사(주)가 전북 익산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미원상사(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미원상사(주)와 전북도, 익산시는 익산 대규모 생산공장을 추가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원상사(주)는 익산 제3일반산단에 3,035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미원상사(주)는 2021년 3,446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2019년 대비 31%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당초 1959년 창업해 화장품, 분말유황 등 기초화학제품 생산으로 시작했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핵심 화학소재, 전자기기 기능성 수지 등의 고부

가가치 정밀화학제품을 상업화했다.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최근에는 정밀화학기업으로 세계시장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미원상사(주)는 지난 1995년 전북 완주에 1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2공장(2008년), 익산공장(2017년)을 설립하는 등 전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익산의 대규모 투자로 전북이 이러한 미원상사(주)의 생산 거점이 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원상사(주)는 관련 설비, 자재, 물류업 등 가능한 분야에서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고, 향후 공장 신설로 확대되는 부분도 지역업체를 활용한 계획으로 도내 연계분야 기업의 동반 성장도 예상된다. 특히, 향후 300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간 5억원의 지방세 수입도 기대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익산제3산

단의 분양률이 97%가 돼 익산의 기업 인기도를 실감케 한다. 미원상사(주) 손승주 대표는 익산 추가 투자 이유로 기존의 익산공장과 집적성, 교통·물류의 편리성 등을 언급하며, "전북 익산시에 생산공장 설립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택립 익산시 부시장은 "익산시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미원상사(주)와 같은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체계적인 수준의 핵심 화학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미원상사(주)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투자로 우리 지역에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북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호상기자·익산=이재춘기자

“지지율 1위 후보를 함정에 빠트리는 기자회견 있었다”

순창군수 출마 3인 기자회견 숨은 의도 있었나? 최영일 예비후보 “모든 법적수단 강구”... 대응 예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순창군수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3명이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브로커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각 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최영일 예비후보(사진)를 함정에 빠트리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예비후보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 이미 계획돼 있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미안하게 됐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최 후보 캠프 관계자의 항변에 A후보 캠프 관계자는 "3명의 후보가 작성한 기자회견문에 동의하려면 지금이라도 외라 시간이 없다. 그렇지 않을 거면 최후보 혼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3명이서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게 최 후보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영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자체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는 회신을 A후보의 캠프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후보측 관계자가 "최영일 후보를 제외한 3명의 예비후보는 전날부터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해왔다. 이날 오전 3명의 후보가 기자회견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며 최영일 후보는 이 기자회견문에 동의하고 참석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후보 캠프 관계자가 "최영일 후보를 빼고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항의하자, A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3명의

후보가 작성한 기자회견문에 동의하려면 지금이라도 외라 시간이 없다. 그렇지 않을 거면 최후보 혼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3명이서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게 최 후보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영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자체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는 회신을 A후보의 캠프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미 더불어민주당 3명의 예비후보가 사전 합의를 끝낸 후, 기자회견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기자회견문도 보여주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최영일이 브로커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관련돼 있어 기자회견에 불참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기자회견을 연 3명의 후보가 처음부터 최영일 후보의 반발을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조작에 개입된 후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음모로 해석

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최 예비후보는 특히 "확인해본바 도의회 기자회견 공지에는 A후보 순창군수 출마 기자회견으로 돼 있으나 갑자기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출마 기자회견이 아닌 3명의 후보가 휴대전화 여론조사 사건 기자회견으로 변경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최영일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한 기획으로 비열한 행위"라고 분개했다. 이어 "더욱이 이날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돈승(완주군수), 한병택(임실군수), 양성민(장수군수) 예비후보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악용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렸던 A후보는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고, 본인 출마 회견을 공지한 뒤, 3명의 후보 기자회견으로 둔갑시킨 저급한 행위는 오히려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3면> 최 예비후보는 "비열한 음수에 대해 긴급 입장문을 배포했다. 마치 선거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프레임 씌워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지금의 의도적인 비열한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며 "이번 음모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후보는 사건의 전말을 군민에게 낱알이 알리고, 즉시 사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A후보측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으나 회의 중이라는 문자만 보내왔다. /유호상기자

민주 전북도지사 경선 김관영·김윤덕·안호영 '3파전'

20일 전후 후보 경선 실시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김관영 전 의원, 김윤덕·안호영 의원(가나다순)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3선을 노린 송하진 현 지사는 유성업 전 의원과 함께 컷아웃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갖고 김관영 전 국회의원(2선),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

수) 국회의원 등 3명을 전북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다. 전북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쉽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